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권중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 | | |
|------|------------------------|----|
| | 요약 | 3 |
| I. | 생활·강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지역별 분포 | 4 |
| II. | 범죄취약지역의 특성 | 10 |
| III. | 범죄에 안전한 안심도시 추진방안 | 15 |

신상영

조권중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293
syshin@si.re.kr

02-2149-1256
kjchoh@si.re.kr

최근 생활·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지자체, 시민 등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안심도시를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행정·사회적인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 강력·생활범죄가 증가추세

서울에서 생활·강력범죄는 2000년대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골목길 등 이른바 ‘노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로 야간,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로 보면 중구, 광진구, 중랑구, 영등포구 등에서 높는데, 이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유흥·숙박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성폭력이 많은 지역은 15~34세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5~34세 여성인구,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고, 세입자가구 비중과 인구이동률이 높은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은 주로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방범용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야간조명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다. 또한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 유지 및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많다.

경찰, 지자체, 시민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행정·사회적 대책과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을 추진

범죄에 더욱 안전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성시가지의 제약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형 환경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찰뿐 아니라 시민에 의한 감시망 및 안전망 형성을 위한 행정·사회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경찰, 지자체,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고히 해야 한다.

I. 생활·강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지역별 분포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강력·생활범죄

2000년대 중반 이후 5대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

- 5대 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폭력, 절도)는 연간 14만 건 가까이 발생
- 5대 범죄 중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
- 성폭력(강간, 성추행)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약 2.5배 큰 폭으로 증가(통계자료 집계상의 원인도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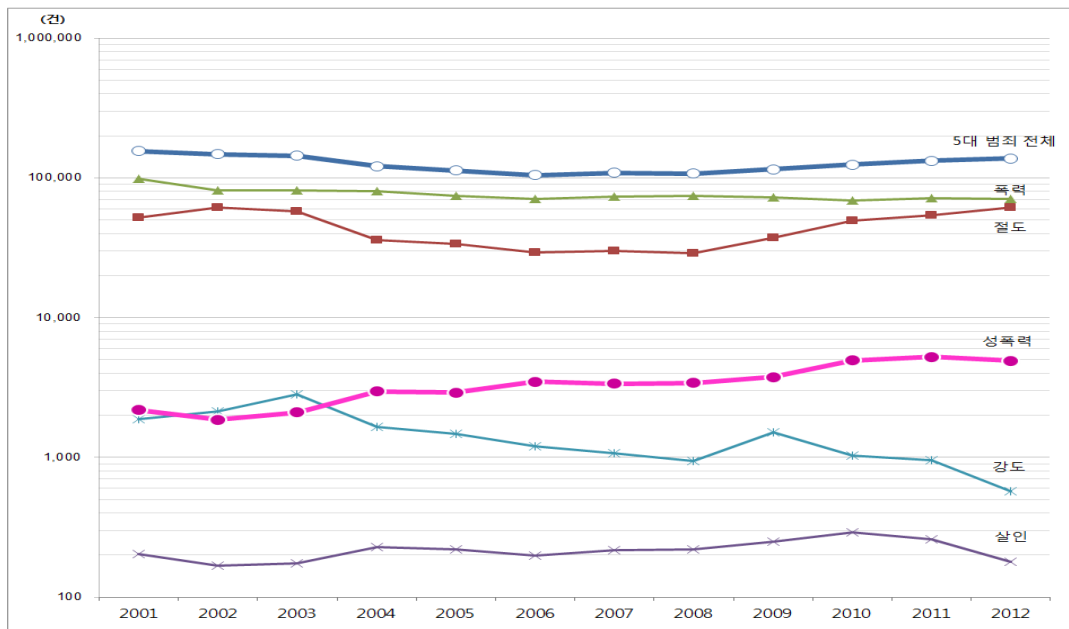


그림 1. 2000년대 이후 서울의 5대 범죄 발생추이

표 1. 최근 3년간 서울의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3년 평균 (2010~2012년) |
|------------|---------|---------|---------|-----------------------|
| 5대 범죄 발생건수 | 124,447 | 132,939 | 137,725 | 131,704 |
| 10만명당 발생건수 | 1,207 | 1,297 | 1,351 | 1,285 |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40대 연령층은 범죄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해자 집단

- 6대 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피해자 중 40대가 20.8%를 차지
- 다만, 성폭력 피해자는 20대가 44.9%로 가장 많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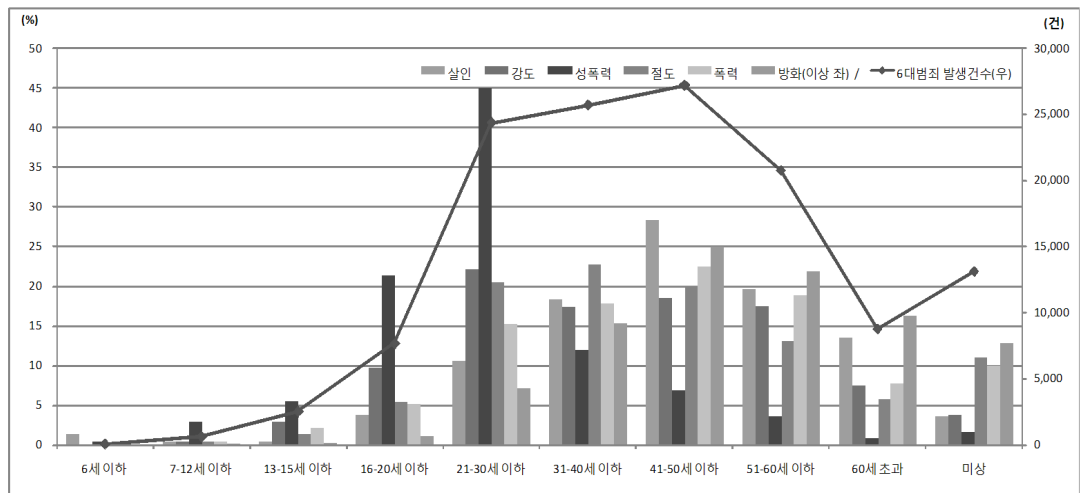


그림 2. 6대 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10~2012년 평균)

- 6대 범죄의 범죄자(가해자) 중에서는 40대가 23.4%를 차지
- 다만, 강도는 20대, 성폭력은 30대, 절도는 10대가 가장 많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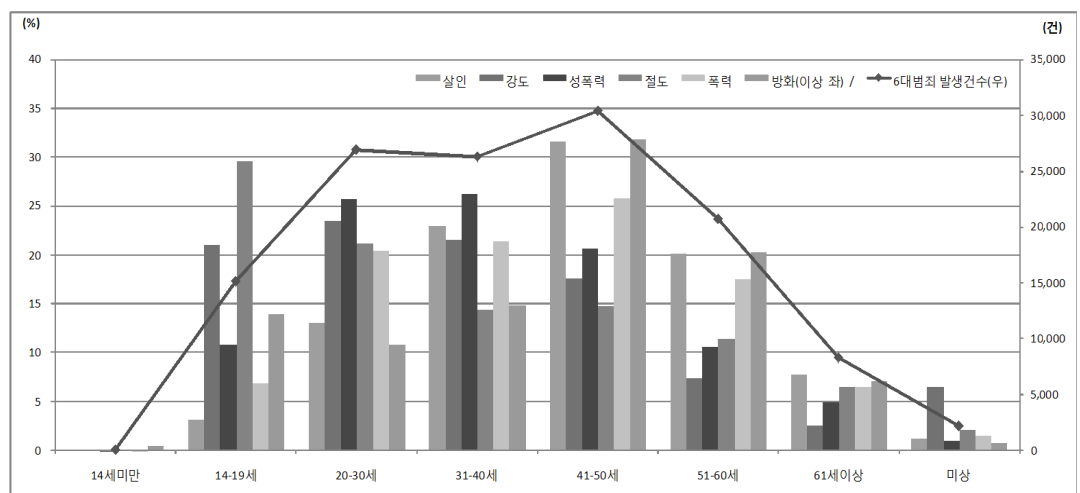


그림 3. 6대 범죄 가해자 연령 분포(2010~2012년 평균)

- 6대 범죄의 범죄자는 직장인 등 피고용자가 가장 많이 차지
- 살인·강도·방화와 같은 흉악범죄와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직자가 가장 많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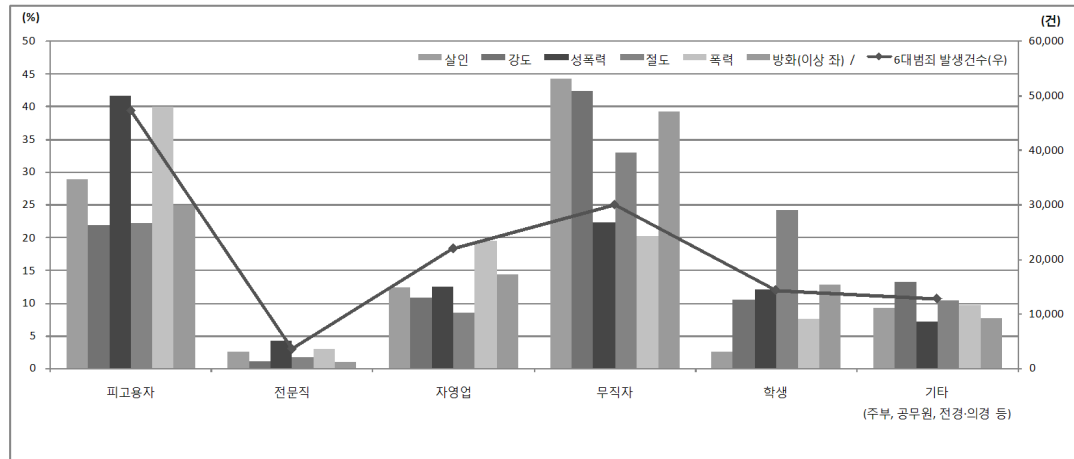


그림 4. 6대 범죄 범죄자의 직업(2010~2012년 평균)

6대 범죄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

- 6대 범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소로(小路), 골목길 등 불특정 공공장소
- 살인과 방화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성폭력은 ‘노상’ 뿐만 아니라 지하철, 숙박업소·목욕탕·유흥업소에서도 많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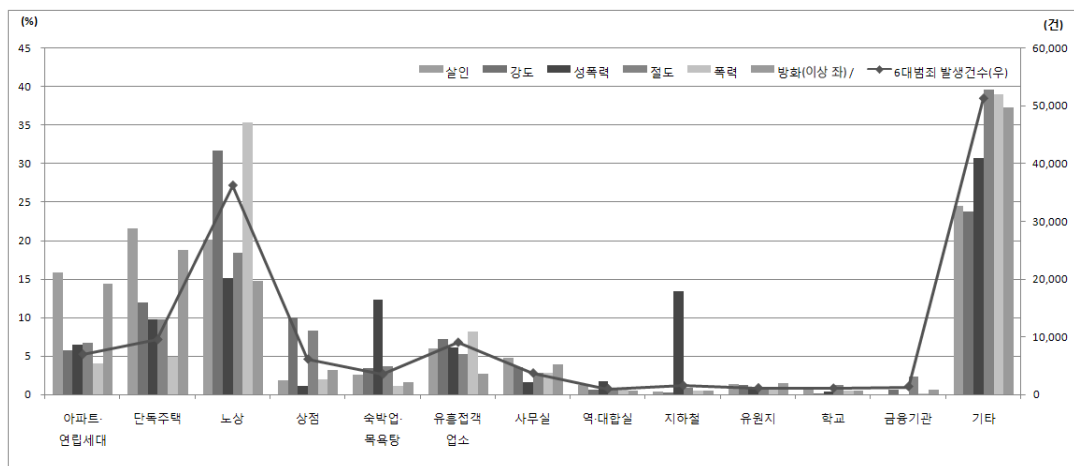


그림 5. 6대 범죄 발생장소(2010~2012년 평균)

6대 범죄는 주로 야간,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발생

- 범죄는 심야(00:00~04:00)와 늦은 저녁시간(20:00~24:00)에 집중
- 주간에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발생
-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일요일, 금요일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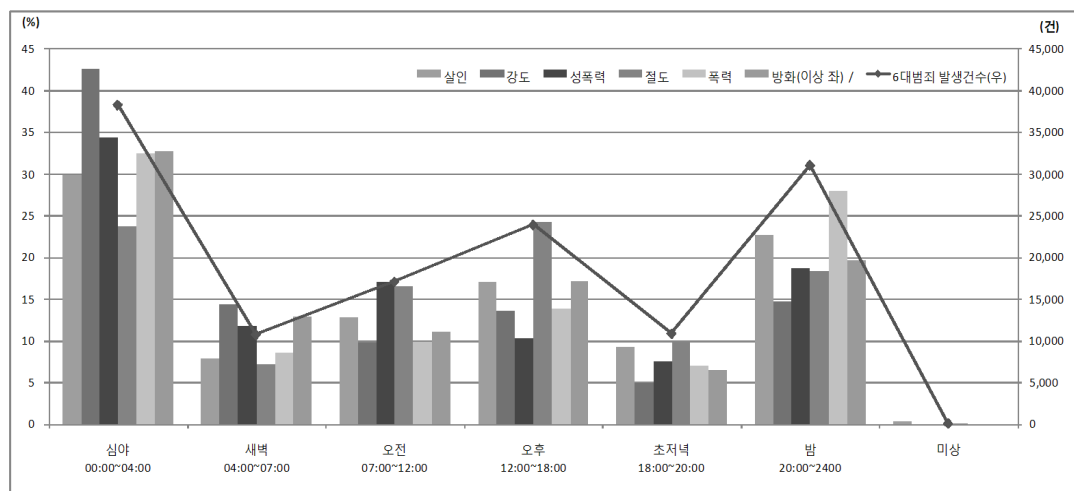


그림 6. 6대 범죄 발생시간(2010~2012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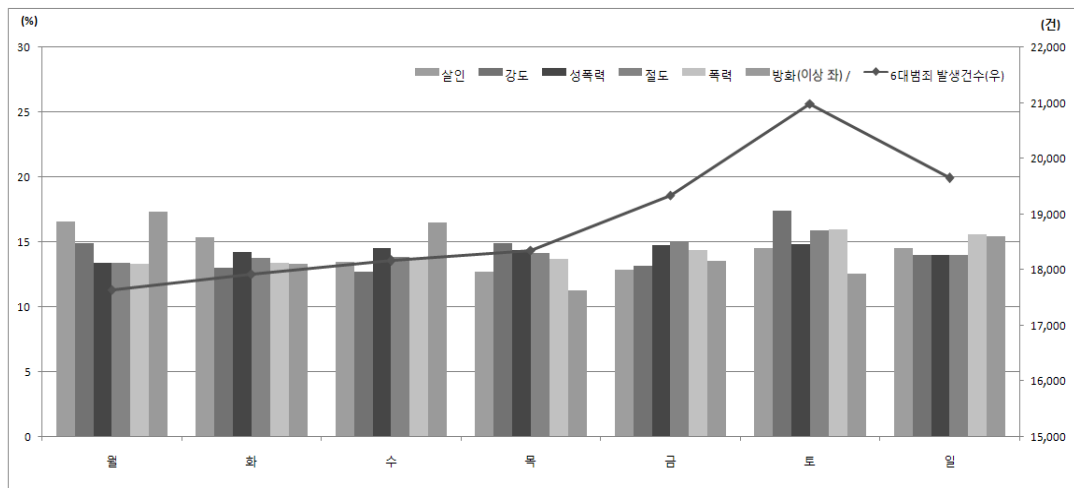


그림 7. 6대 범죄 요일별 발생비율(2010~2012년 평균)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가 발생

6대 범죄의 발생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

- 2010~2012년 기간 중 발생건수는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의 순
- 그러나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는 중구, 광진구, 중랑구, 영등포구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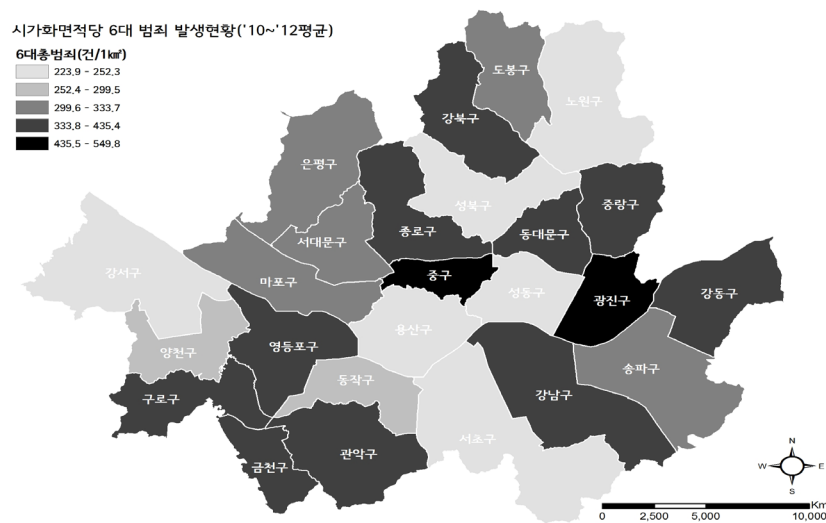


그림 8. 자치구별 6대 범죄 전체 발생밀도(2010~2012년 평균)

표 2. 범죄유형별 발생빈도가 높은 자치구(2010~2012년 평균)

| 구분 | 범죄유형 | 범죄발생 순위 | | |
|-----------------------|------|---------|------|------|
| 발생건수 | 살인 | 영등포구 | 강남구 | 동대문구 |
| | 강도 | 강남구 | 동대문구 | 영등포구 |
| | 성폭력 | 강남구 | 관악구 | 서초구 |
| | 폭력 | 강남구 | 영등포구 | 중랑구 |
| | 절도 | 강남구 | 송파구 | 영등포구 |
| | 방화 | 노원구 | 강남구 | 종로구 |
| 발생밀도 (시가화면적 1km²당) | 살인 | 영등포구 | 금천구 | 동대문구 |
| | 강도 | 동대문구 | 광진구 | 관악구 |
| | 성폭력 | 관악구 | 광진구 | 중구 |
| | 폭력 | 중구 | 중랑구 | 강북구 |
| | 절도 | 중구 | 광진구 | 관악구 |
| | 방화 | 종로구 | 중랑구 | 중구 |

6대 범죄의 발생이 많은 지역은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역에서도 많이 발생
- 다만, 성폭력 범죄가 많은 지역은 15~34세의 젊은 여성 밀집지역

표 3. 경찰서 단위 범죄발생밀도와 지역특성 간의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변수 | 범죄발생밀도 | | | | | | |
|----------------|-----------------|-------------|--------|---------|---------|----------|----------|---------|
| | | 6대 범죄 전체 | 살인 | 강도 | 성폭력 | 폭력 | 절도 | 방화 |
| 인구 및 가구 | 거주인구밀도 | 0.002** | | | 0.002 | 0.002** | 0.002** | 0.003 |
| | 노령화지수 | | -0.009 | | | | | |
| | 15~64세 인구 비율 | | | 0.051 | | | | |
| | 남성인구 비율 | | | 0.143 | 0.121 | | | 0.242 |
| | 15~34세 여성인구 비율 | | | | 0.065** | | 0.020 | -0.053 |
| | 인구이동률 | | | | | | | |
| | 1인 가구 비율 | | | | | | | |
| | 자가점유가구 비율 | | 0.042 | | | | | |
| |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 | | | | | 0.003 |
| 토지이용 | 단독·다가구주택 비율 | 0.011** | 0.031 | 0.015 | | 0.007** | 0.007** | |
| | 주거상업혼합지 비율 | 0.004** | | | | | 0.003 | |
| | 상업업무시설지 비율 | 0.025** | 0.040 | | | 0.017 | 0.018** | |
| | 공원·녹지 비율 | | -0.013 | | | -0.008** | | 0.001 |
| | 도로율 | | | | | 0.013** | | -0.007 |
| | 소로·골목길 비율 | | | 0.009 | 0.010 | | -0.013** | |
| | 1980년 이전 건축물 비율 | | | | | | -0.004 | |
| | 1990년 이전 건축물 비율 | -0.011** | | | | | | |
| | 유흥·숙박시설 비율 | 0.138** | | | 0.160 | 0.183** | 0.152** | 0.268 |
| 유동인구 | 유동인구수 | | | | | -0.000* | | 0.000 |
| 경제적 수준 | 주택(아파트) 가격수준 | -0.000** | | | | -0.000** | -0.000** | -0.000 |
| 상수 | Intercept | 5.412 | -2.793 | -11.267 | -6.753 | 4.311 | 4.596 | -10.818 |
| 관측치 수 | | 29 | 31 | 30 | 30 | 29 | 30 | 30 |
| Log Likelihood | | 51894.7 | -28.0 | -8.4 | 693.8 | 24482.3 | 18593.0 | -27.8 |

** : $p < 0.01$, * :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II. 범죄취약지역의 특성

범죄취약지역은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

범죄취약지역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

- 범죄취약지역(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 거주인구밀도가 높고, 15~34세 여성인구,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 또한 자가점유가구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아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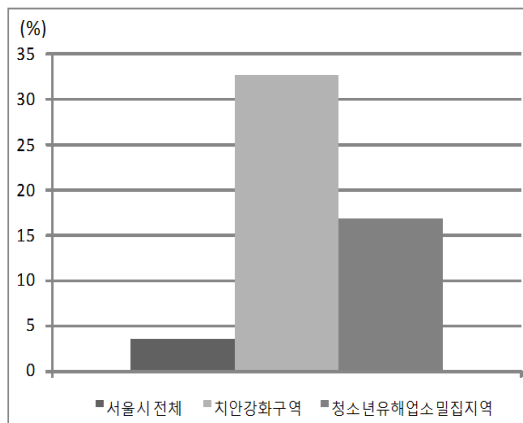


그림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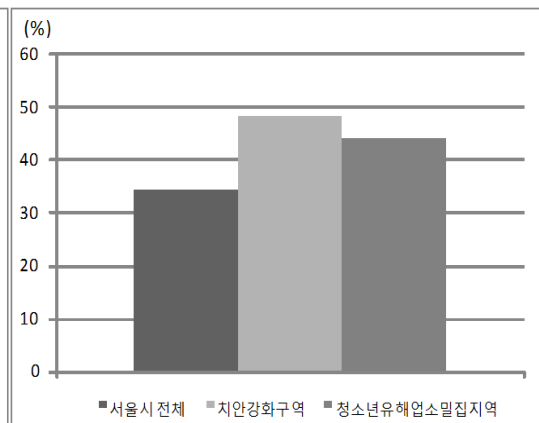


그림 10. 인구이동률

표 4. 서울의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및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유해업소 밀집지역 현황(2013년)

| 구분 | | 지정개소 설명 | | 지역특성 |
|-----------------------|--------------|---------|-----------------------|---|
|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 | 160 | 경찰서별 관할 지구대에서 지정·관리 | 취약계층 밀집지역,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재개발지역 등 |
| 청소년 | 소계 | 72 | | 중심상업지 인근 전철역 주변, 대학가,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
| 통행금지·제한· 유해업소 밀집지역 | 통행금지구역 | 5 | 윤락가 5 | |
| | 통행제한구역 | 4 | 유흥가 3, 윤락가 1 | |
| | 유해업소 밀집지역 | 63 | 자치구별로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정·관리 |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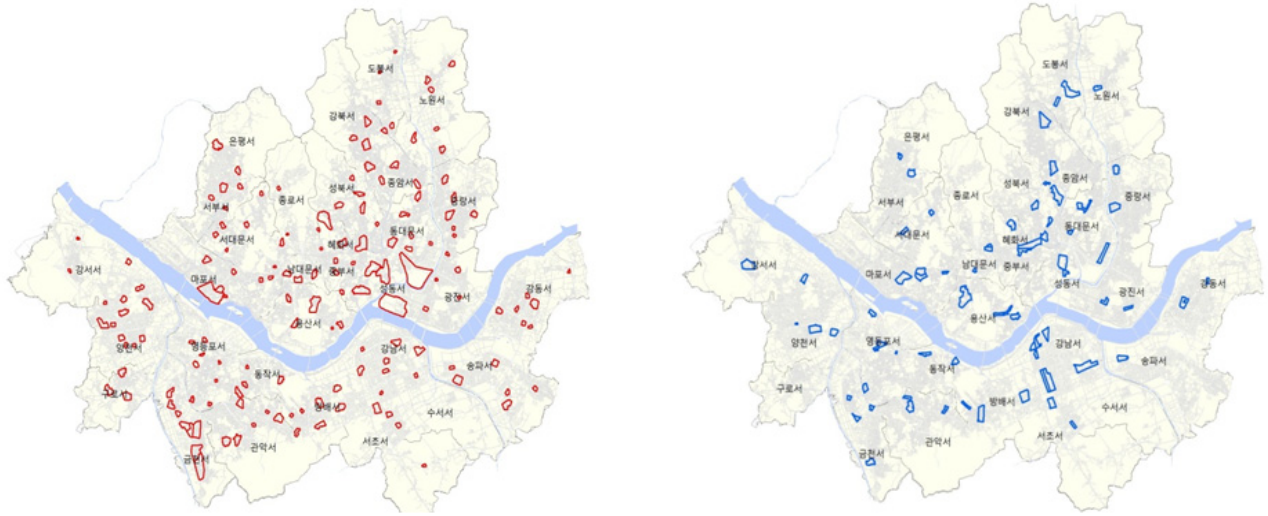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범죄취약지역 분포: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좌),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우)

- 범죄취약지역은 단독·다가구, 주거상업혼재, 상업시설 밀집지역
- 치안강화구역은 이 중에서도 특히 소로, 골목길의 비중이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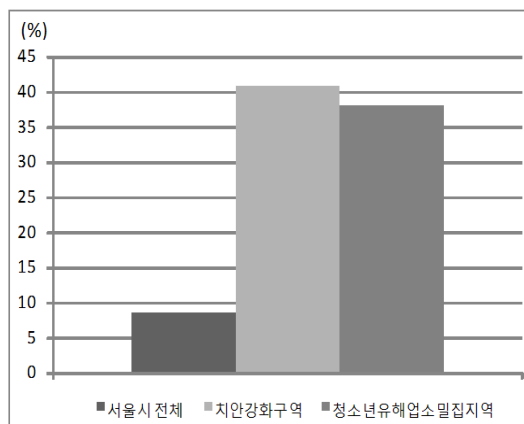


그림 12. 단독주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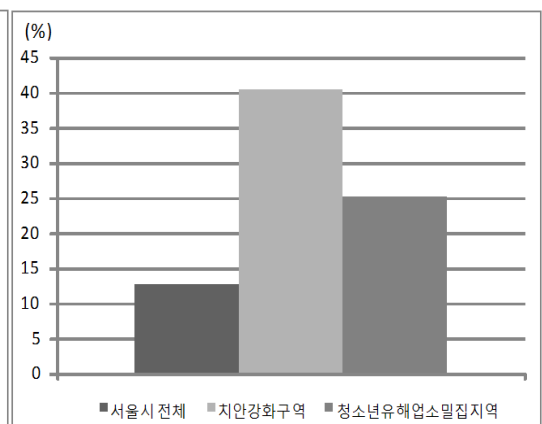


그림 13. 주거상업혼재지 비율

범죄취약지역은 주로 ‘저소득 주거지형’, ‘주상혼재형’

-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치안강화구역에서는 ‘저소득 주거지형’이 가장 많고, ‘주상혼재형’과 ‘구도심형’이 일부 존재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주상혼재형’이 가장 많고, ‘중심가형’과 ‘구도심형’이 일부 존재

표 5. 치안강화구역 유형별 특성 요약

| 구분 | A1(‘저소득 주거지형’) | A2(‘주상혼재형’) | B(‘구도심형’) |
|--------------|--|--|--|
| 대상지역 수 | 93 | 24 | 7 |
| 인구 및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밀도 매우 높음 ▪ 인구이동률 높은 편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밀도 높은 편 ▪ 젊은 여성 매우 많이 거주 ▪ 1인 가구 매우 많음 ▪ 인구이동률 높은 편 ▪ 세입자 가구 많음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많은 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밀도 낮음 ▪ 노인인구 매우 많음 ▪ 남성인구 매우 많음 ▪ 젊은 여성 많이 거주 ▪ 1인 가구 매우 많음 ▪ 인구이동률 매우 높음 ▪ 세입자 가구 매우 많음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매우 많음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 주상혼재 매우 심함 ▪ 공원·녹지 적음 ▪ 소로·골목길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 주상혼재 매우 심함 ▪ 상업시설 많음 ▪ 공원·녹지 적음 ▪ 소로·골목길 많은 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매우 많음 ▪ 상업시설 매우 많음 ▪ 공원·녹지 적음 ▪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
| 유동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적은 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보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많음 |
| 경제적 수준(주택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낮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보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낮음 |

표 6.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유형별 특성 요약

| 구분 | C(‘주상혼재형’) | D1(‘중심가형’) | D2(‘구도심형’) |
|--------------|---|---|--|
| 대상지역 수 | 35 | 24 | 7 |
| 인구 및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밀도 높음 ▪ 젊은 여성 많은 편 ▪ 1인 가구 많음 ▪ 인구이동률 높음 ▪ 세입자 가구 많음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여성 매우 많이 거주 ▪ 1인 가구 매우 많음 ▪ 세입자 가구 매우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구밀도 적음 ▪ 노인인구 많음 ▪ 남성인구 많음 ▪ 젊은 여성 많은 편 ▪ 1인 가구 매우 많음 ▪ 인구이동률 매우 높음 ▪ 세입자 가구 많음 ▪ 저소득층 매우 많음 |
| 토지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 주상혼재 매우 심함 ▪ 상업시설 많음 ▪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많음 ▪ 주상혼재 심한 편 ▪ 상업시설 매우 많음 ▪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다가구주택 매우 많음 ▪ 상업시설 매우 많음 ▪ 유흥·숙박시설 매우 많음 |
| 유동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많은 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보행)인구 매우 많음 |
| 경제적 수준(주택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매우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높은 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격수준 낮은 편 |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기초질서 유지와 환경관리도 중요

현장조사 결과,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들이 범죄취약지역

- 방범용 CCTV는 설치대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효율적으로 설치
 - 주로 교차로, 어린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
 - 공공에 의한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을 보완적으로 설치



그림 14.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골목길



그림 15. 자율방범대 시설, CCTV, 사설 방범시스템

-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밝기가 충분치 않아 어두운 지대가 발생
 - 유흥시설, 모텔 등이 주택가에 바로 인접하여 성업하는 경우도 발생



그림 16. 좌측으로부터 어두운 밤길, 주택가에 인접한 유흥업소·모텔, 불법투기 쓰레기, 무질서한 케이블

표 7. 범죄취약지역 현장조사 요약

| 조사항목 | 광진구 군자지역 | 강남구 역삼지역 | 종로구 돈의지역 | 관악구 신림역 일대 |
|--------------------------------------|---|--|--|--|
| 입지 특징 | ▪ 단독·다가구·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 ▪ 중·저층 원룸 밀집지역 | ▪ 도심 상가 후면 저소득 쪽방 밀집지역 | ▪ 원룸, 다가구·다세대, 유흥시설 밀집지역 |
| 가로환경 - 도로폭원, 시야선 확보, 담장, 조경시설 등 | ▪ 도로폭 좁음 ▪ 주택가 골목길이 구불구불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답답하며, 막다른 길 많음 ▪ 담장 있음 ▪ 조경시설 없음 | ▪ 도로폭이 보통이고, 격자형으로 계획된 도로 ▪ 담장 없음 ▪ 조경시설 거의 없음 | ▪ 도로폭이 매우 좁고 답답한 느낌(폭원 2m 이하) ▪ 낮에도 어둡고 미로형 ▪ 담장 없고, 도로면에서 곧바로 현관 출입구 | ▪ 도로폭 보통 ▪ 비교적 격자형 ▪ 조경시설 없음 |
| CCTV 등 방범시설 | ▪ CCTV는 주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개인용 CCTV 또는 보안시스템 설치 | ▪ 3방향 CCTV 설치 ▪ 어린이집이나 교차로 부근에 설치 ▪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 개인용 CCTV 또는 보안시스템 설치 | ▪ CCTV는 주택가 외곽에 설치되어 사각지대 발생(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주거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치안을 위한 반딧불로드(종로경찰서) 지정 및 순찰 강화 | ▪ 주로 교차로나 진입부에 설치 ▪ 원룸이나 상업시설에 사설 CCTV 설치 |
| 질서 및 유지관리 상태 - 불법주차, 쓰레기, 노상적치물 등 | ▪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불법주차 있음 ▪ 노상적치물 다소 발생 ▪ 쓰레기 골목길에 방치 | ▪ 가로환경의 유지관리는 양호한 편 ▪ 노상적치물 없음 ▪ 외부인들의 불법주차 약간 있음 | ▪ 악취가 심하며 쓰레기 방치 ▪ 주차공간 전혀 없음 | ▪ 불법주차 많음 ▪ 전단지 등 쓰레기 방치 ▪ 노상적치물 많음 |
| 야간조명 및 환경 | | | | ▪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역, 가로등이 적어 매우 어두움 |
| 기타 특기사항 | ▪ 개방적 건물형태로 인해 이웃감시 가능 | ▪ 폐쇄적 건물형태로 인해 이웃감시 불가능 | ▪ 음식점, 모텔 등 상가 뒤편에 위치한 음영지대 | |

Ⅲ. 범죄에 안전한 안심도시 추진방안

경찰, 지자체, 시민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

범죄발생 특성을 고려한 행정·사회적 대책과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

- 범죄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
 -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 물리적 환경 개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순찰과 단속, 시민감시활동,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
 -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과제, 주민특성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 지자체, 시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치안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 사전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 단속이나 검거와 같은 사후대응보다는 범죄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전반적인 안전문화를 높이는 사전예방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주요 추진전략

| 정책과제 | 추진전략 |
|----------------------------|---|
| 범죄예방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 확대 | - 기성시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한 공간영역별 대책 마련 - 범죄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CCTV 등 확충 - 도시계획적 수단과 연계 및 공공지원 강화 |
| 행정·사회적 대책을 통한 감시망 및 안전망 형성 | -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 강화 - 범죄예방을 위한 질서 유지와 환경미화를 통한 지역사회 관리 -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와 정보 제공 |
| 치안협력 거버넌스 구축 | -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 |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을 확대

기성시가지 제약조건과 가능성을 활용한 공간영역별 대책을 마련

-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 장소, 지역유형 등에 따른 특성별 대책을 마련
 - 야간에 많이 발생하므로 야간조명, 경보장치, 사각·음영지대 해소, 침입방지를 위한 방범시스템 등에 중점
 - 골목길을 비롯한 ‘노상’을 중심으로 CCTV, 야간조명, 시야선 확보와 유지관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가로환경 정비, 표지판 설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
 - 고밀주거지역,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계층과 ‘뜨내기’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성 제고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에 입각하되, 기성시가지 적용상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공간영역별 대책을 마련
 -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따른 용도분리, 접근통제, 감시 및 시야선 확보, 영역성 확보, 활동성 유지, 유지 및 관리 등 범죄예방전략을 기성시가지 제약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간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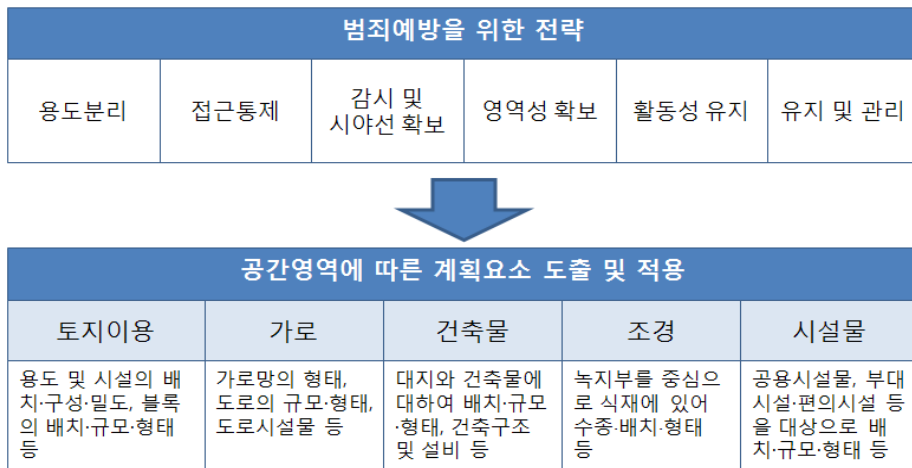


그림 17.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과 공간영역별 대책 마련

- 방법용 CCTV 설치밀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지원
 - 관악구, 금천구 등 발생범죄에 비해 CCTV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
- CCTV의 효율적인 배치와 위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
 - 범죄발생 위험도, 취약인구 및 취약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배치 및 위치선정 기준을 마련
-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낮은 CCTV의 단계적 교체 및 개선
- CCTV에 더하여 반사거울, 비상벨 등 다양한 감시·경보장치를 보완적으로 활용



- 마을단위 또는 지구단위의 면적(面的) 환경정비를 강화
 - ‘마을만들기’형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정협약을 촉진하고 공공이 지원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시설물, 건축물 등 일체적·종합적 정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범죄위험지역 유형별(단독·다가구, 주상혼재, 상업밀집지역, 공원, 학교 주변 등) 범죄예방환경설계지침을 마련
- 저소득층,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이나 세입자와 같은 ‘뜨내기’ 밀집지역 등 자력에 의한 방법시스템 구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공공에 의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

행정·사회적 대책을 통한 감시망 및 안전망을 형성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강화

-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통제’에 더하여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강화
-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 장소, 지역유형 등에 따른 중점대책을 마련
- 야간순찰, 안심귀가지원, 24시간 영업장소(예 : 편의점)를 활용한 감시 강화
-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방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주말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방범상 역할 강화를 유도
- 원룸 밀집지역,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상업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블록단위의 순찰 및 경비, 주민조직 및 유대망을 형성
- 상점·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비주거지형 지역사회조직 형성, 업소들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불법업소 단속을 강화
- 젊은 여성 밀집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세입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귀속의식이 약하고 ‘뜨내기’들이 많은 이들 지역에 대하여 경찰인력 증강 배치, 안심귀가지원 등 공식적인 범죄통제기능을 강화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을 강화

-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주민과의 접촉, 도보순찰, 자전거순찰을 강화
- 지역별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주민순찰 및 감시기능을 개선
-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순찰·보호활동에 대하여 중복성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
- 민간방범순찰인력의 역량 강화, 순찰장비의 개선, 순찰일정(특히 주말방범 강화), 범죄위험도와 효율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순찰방식 및 순찰경로를 설정
- 지역의 주민조직 활성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망을 강화하여 자연스런 감시망을 형성
- 동 단위 이하의 네이버후드(neighborhood) 또는 블록단위의 조직을 형성하여 마을일꾼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 마을 둘러보기 및 범죄취약시설 파악, 방법상 개선과제 발굴, 환경 개선 및 건의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상점, 업소 등의 ‘파수꾼’ 역할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
- 지역사회조직, 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간의 정례적인 교류 및 공조체계를 구축

기초질서 유지와 환경미화를 통한 지역사회 이미지 관리

- 경범죄 단속 및 기초질서 유지, 환경미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관리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며, 뉴욕시를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에서 이를 입증
- 무질서, 경범죄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를 강화
-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불법 노상적치물, 신호위반, 낙서, 고성방가,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제고
-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노상적치물, 불법전단지 살포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 특히 자치구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
- 청소 및 환경미화를 위해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업소들의 자율적인 자정노력, 문화행사, 거리예술 등을 유도

시민들의 범죄대응역량 강화와 정보 제공

- 시민의 범죄대응역량을 강화
 - 범죄예방 및 대처요령 숙지를 위한 교육, 훈련, 홍보 등을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치확인서비스, 호신용품 등을 보급
 - 비상시 피신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하여 운영
- 범죄위험정보 및 지역정보를 제공
 - 범죄정보와 지역정보의 결합을 통한 범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보급
 - 범죄위험지도 만들기는 현행 초등학생 중심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되,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 등 효율적인 제작방법을 모색
 - 미로형 골목길 등에 대한 위치파악 지원을 위한 표지판, 안내지도 등을 확대

치안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을 위한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 지자체, 지역주민 간 협력을 강화
-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이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등)을 찾아 해결하려는 접근방법
- 경찰에 의한 순찰과 단속, 지자체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 범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보호 등을 위해 상호협력과 공조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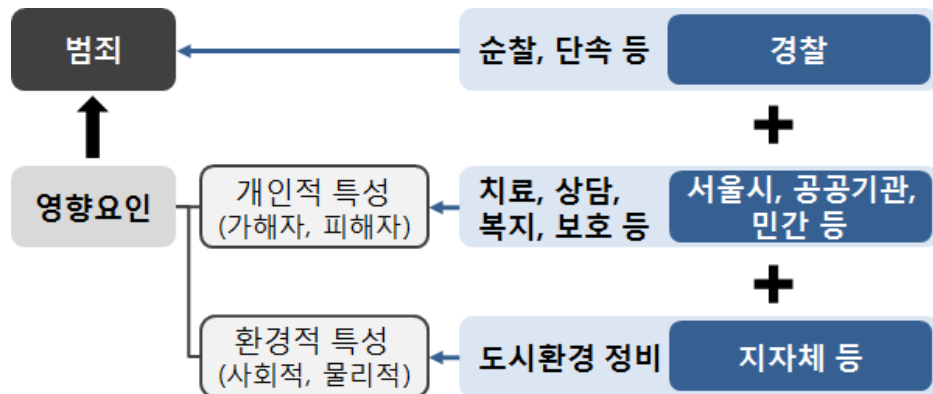


그림 19. 문제지향적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주체 간 상호 협력

- 범죄정보와 지역정보의 상호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경찰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통계, 지도 등의 형태로 제공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치안을 강화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 강화를 위한 경찰과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
- 범죄다발지역(crime hot spot)에 대하여 치안인력을 증강 배치
 - 범죄다발지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특수기동대’ 창설, 경찰인력 부족에 따른 순환배치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
- 경범죄,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무질서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한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 Windows policing)¹⁾을 강화
- 범죄예방정책의 장기적인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

1) ‘깨진 창문’ 경찰활동(Broken Windows policing): ‘깨진 창문’ 이론에 바탕을 둔 경찰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무질서가 방치되어 황폐화되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이는 실질적인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질서 행위, 낙서, 구걸, 무임승차, 불법주차, 기초질서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함. 뉴욕시 줄리아니(Giuliani) 시장 당시 지하철 낙서지우기, 무임승차 단속, 매춘 및 불량청소년 단속 등을 통한 범죄율 감소가 대표적인 사례임.